

주거문화

박재완의 발걸음경계에서



박재완
여행작가



극진한 효심 삼효문에 새겼다

정원에서 본 삼효문.

영광 매간당 고택

영광읍에서 염산 방면으로 이십여리 가면 군남과 불갑의 넓은 벌판이 펼쳐진다. 옛길에는 풍운교가 있고, 새롭게 확장된 808번 도로의 외간교와 나란히 있는 곳이 매간당 고택으로 가는 동네 입구이다. 동간리 동편 마을 입구에 선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와 홍살문이 주목 들게 만든다. 동쪽에 있다 해서 동편마을이고, 요강처럼 생겼다고 해서 요강마을이다. 두 마을을 합친 이름은 동간마을이다. 불갑천변 특방길로 가다 작고 아늑한 산모퉁이를 돌면, 매간당 고택 솟을대문이 눈에 들어온다. 풍수지리상 매간당 고택은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의 길지며, 학의 형상이라 한다. 과거에는 연안김씨 종택이라 불렀는데 현재는 '매간당 고택'으로 불리고 있다. 1998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로 지정됐다.



서당에서 본 삼효문.

매화꽃 떨어지는 형국의 길지 '학의 형상' 연안김씨 종택...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 독특·위엄 있는 고건축물 등 볼거리 가득

◇매간당, 조선후기 상류층 집

매간당(梅間堂) 고택은 조선 후기의 상류층 집이다. 12동으로 규모도 크다. 1868년 김영이 터를 잡고 지었다. 안채의 상량문에 '송정기원후사무진이월이십구일(崇禎元元四年文辰二月二十九日)'이라 새겨져 있어 지은 날짜를 짐작할 수 있다. 고종 5년(1868)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안채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에 타 다시 지었다고 한다. 연안김씨 직강공파(延安金氏宗直講公派)의 종택이다.

◇솟을대문 위 효자각 올린 2층 누각 '삼효문'

용 문양을 한 삼효문이 우뚝 서 있고, 조상을 모신 사당과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집을 지을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존상태도 좋다는 평을 받는 곳이다.

매간당 고택은 전국 유일의 매우 특별한 대문을 갖고 있다. 고종 5년 건립된 것으로 솟을대문 위에 한 칸 규모의 효자각을 올린 2층 누각이며, 여찌 보면 정려각으로 삼효문(三孝門)이다. 대문과 정려각을 함께 둔 것이 색다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계단 난간은 고급스럽게 조각된 당초문으로 장식됐다. 2,000여 평의 대지에 125칸의 종택은 팔작 기와지붕으로 양 날개에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여의주를 입에 문 용머리 장식을 하고 있어, 민가가 아닌 산사에 다녀온 느낌이 든다.

◇효자 3명, 고종 '효자각 지오라' 명 내려 삼효문에는 3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14세(孝子金眞進

十贈通政大夫司義司政延安金眞之閭 顯宗廟己酉命族) 김진(金眞)은 70세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하다 상을 당해 3년간 죽으로 연명해 1669년 효자로 명정됐고 사복시정이 증직됐다. 19세(孝子通德院延安金載明之閭 高宗 憲亥命族) 김재명(金載明)은 김현의 아들로 부모상을 당해 시묘살이를 하던 중 호랑이가 나타나 자 다른 짐승들이 막아주었다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20세(通政大夫禮式院左掌書延安金舍之閭 高宗 憲亥命族) 김합(金舍)은 한겨울에 두꺼비를 구해 부모의 병을 구완해 1899년 효자로 명정됐다.

'삼효문'은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해 승지를 지낸 김종관 대에 지었다. 김종관은 고종 때 종묘제사에 축문을 쓰고 독축을 하던 사람으로 고종으로부터 3명이나 효자명정을 받았으니 효자각을 지으라는 명을 받아 지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삼효문'이란 현판 글씨는 흥선대원군의 큰아들이며 고종의 형인 이재면의 글씨로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매간당 가운데 두고 왼쪽 구간채, 오른쪽은 익수채 사랑채에는 3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가운데 현판 매간당은 10대손 김사형(1830~1909)의 호로 산속 물가에 핀 매화를 가리킨다. 남의 눈치 살피지 않고 소박하게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른쪽 익수채(益壽齋)는 김혁기(1851~1897)의 호로 나이가 들 어갈수록 더욱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다. 왼쪽 구간채(龜巖閣)는 12대손 김종관(1870~1943)의 호로 거북이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작은 도랑물도 조심한다는 뜻



매간당.

으로 매사에 작은 일에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인과 집을 한 몸처럼 여긴 건축물이다.

◇'십 여채 건물 조화롭게 배치'

어느 탐방객이 매간당 방문기를 올렸는데 우리의 고건축물을 표현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가옥은 입지의 사정상 북향을 했는데 좌우로 길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형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기능적으로 구획하여 서쪽에 안채를 중심으로 한 살림 공간, 동쪽에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응접 공간을 이루었다. 'ㄷ'자 형태의 안채는 중문채, 아래채, 곳간채 등과 어울려 'ㄱ'자를 이루고, 뒤쪽 조금 더 높은 곳에 사당을 두었다. 사랑 공간은 안채와 달리 개방성이 강하게 느껴 지는데 삼효문과 사랑채 외에 집안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서당 건물을 따로 둔 특징이 있다. 두 공간은 높은 담장으로 구획된 가운데 십여 채의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됐으며, 그 사이에 정원과 연못, 우물 등을 두었다'.

이어 '고택의 대문은 솟을대문의 변형이 아니라 평대 문 위에 한 칸 누각을 얹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낮은 기단을 조성한 뒤 등글게 깎은 높직한 주좌 위에 다듬지 않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세워 자연미를 뽐냈다. 지금은 큰 문만을 이용하지만, 오른쪽 작은 문이 평소의 출입문 이었고, 큰 문은 가마가 드나들던 곳. 문설주 위를 가로 지른 부재가 위로 흰 것도 가마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위가 휘어진 대문과 달리 중문 문지방이 아래로 휘어진 것은 한복 차림의 집안 부녀자 출입을 고려한 것. 이 정도 배려라면 안채 구석구석에도 슬기가 배어있을 텐데, 들어갈 수 없음이 아쉬울 수밖에. 옛집 답사에서 느끼는 서로 간의 불편함. 매간당 고택은 외부인에게 사랑 공간만을 내어주는 선에서 타협했는데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한옥을 보는 눈매가 많은 식견을 가진 분인 것 같다. 볼거리가 많은 고택이자, 종가여서 아이들과 조상에 발 지취를 찾는 여행의 재미도 쏠쏠하다.

/사진제공-인경호 영광 누락면장